

調査를 거쳐 原來의 모습을 再現하여야 할 것이다.

本調査에 있어 咸安警察署 餘航支署 長 최광민氏, 現地를 案内해 주신 古老徐用石氏等의 好意에 感謝한다.

法廣寺址와 釋迦佛舍利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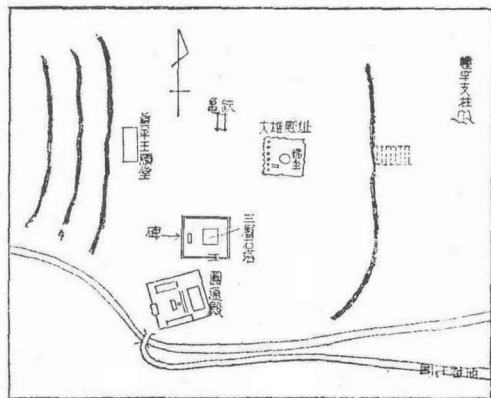
朴 日 蕪

慶北迎日郡神光面上邑洞에 所在한 法廣寺址는 飛鶴山東麓 傾斜地帶에 東海迎日쪽을 向하여 展開되었고 山谷에서 흐르는 溪谷의 北岸 參差한 平坦地帶에 따라 東向으로 新羅第二十六代 眞平王代에 創建된 古刹로 大伽藍이 配置되었으나 그 遺構는 廢墟되어 全寺域은 耕地로 變하고 많은

石造遺物은 散逸과 破損 또는 埋沒되었다.
大雄殿址

全寺域의 中心部에 位置하였고 自然石築壇으로 高臺를 이루워 方形으로 五間四至로 配列된 礎石만 一部露出되고 거의 埋沒되었다. 埧片이 出土되고 있으니 數博施設인 듯하다.

法廣寺址 略圖



佛座 本大雄殿址 中央에 巨大한 八瓣蓮臺가 二個一石으로 一部破損傷을 입었으나 上下 層段造出이 八稜線으로 大膽한 手法으로 되고 下部는 八稜灣曲 十六區에 眼象이 彫刻되었다. 高六五cm 伏蓮徑二・五五m 中石도 八角으로 各面隅柱를 造出하여 柱角도 八稜線의 手法으로 統一하였다. 高五五cm 面徑一・二三m 仰蓮臺도 伏蓮臺와 같은 手法으로 雄大한 蓮瓣이 있었을 것이나 周圍花瓣部分을 削減시켜 아무런 彫刻形體도 없는 半球形의 石塊만 남아 側近에 轉倒되어 있다. 이 臺座위에 安置되었던 石佛인 듯한 坐佛은 頭部와 兩膝이 破損된 채 胴體만 大雄殿址 西部築壇 옆에 있어 놓았다.

雙龜趺 一 座

大雄殿址에서 西쪽 約四〇m 距離에 東向으로 位置하였으나 碑身과 龜首는 간곳 없고 兩頸部도 缺失되고 龜甲紋一部와 前足一部가 남아 있을 뿐 龜身도 甚한 破裂傷을 입었다. 背上面에는 碑身의 嵌入座가 남아 碑幅約八五cm 厚約一八cm임을 짐작할 수 있다. 龜身長約一・五〇cm 幅約二m.

幢竿 支柱 本寺址의 東쪽 約一〇〇m 地點 元來 本寺로 들어오는 於口에 位置



하였으나 傾斜地帶의 沙汰로 自然埋沒되어 附近은 層段으로 開墾되어 水畝으로 化하였다 竿柱는 논뜰에 上部만 남았고 下部는 地下에 묻었다.

○三層石塔一基
一重基壇의 三

層石塔으로 三層塔身이 缺失되었을뿐 거의 損傷없는 塔이다. 基壇上 下甲石의 落水面은 勾配가 甚하고 上基壇面石은 一石으로 各面은 中央에 撐柱와 隅柱로 二區로 되었다. 各層屋蓋裏에 落水溝가 있고 斗拱은 五段으로 얇게 造出되었다. 各層轉角에는 風鈴孔이 있고 三層塔身을 復原하면 總高約 三·五〇m로 된다.

○釋迦舍利塔碑

本碑身은 距今 二十七年前에 前記 三層塔 北쪽約 5m 地點에 埋沒되어 있음을 發掘하여 三層塔 西側에 移建하였다 한다. 本碑를 發見한 動機는 現在 經營되고 있는 小寺의 創建僧 故李圭敏氏의 夢現에 依하여 發見되었다 한다. 碑文은 附記로 紹介하겠으나 碑文에 五層塔이라 하지만 現在 三層塔以外는 本寺址에 石塔이 보이지 않으므로 本塔에 「釋迦佛舍利」를 刻字한 長四寸 幅一寸의 玉牌와 鑄造한 銅函에 透明된 水晶外盒에 純銀製內盒 속에 비단으로 鄭重히 싸인 菘豆色 釋迦眞身舍利가 二十二顆 奉安되어 있으리라고 推測된다.

○石佛坐像二軀

近來 經營되고 있는 圓通殿內에는 本寺址에 散在되어 있는 石造遺物을 옮겨 놓았는데 殿에 等身大 石佛坐像이 大小 二軀 安置되었고 缺

失部分은 補強하여 金色으로 塗裝되었다. 殿庭에는 新羅時代作인 石燈伏蓮臺 三基와 竿柱一個 塔上의 寶珠一個가 保存되고 있다.

○拜禮石一基

本拜禮石은 前記石燈 앞에 놓였고 前後面에 眼象三區씩 兩側面에 眼象二區씩 彫刻되었고 上面 奉爐座에는 華麗豊美한 寶相華紋을 彫刻하였다. 下部에는 바침을 三段으로 造出된 地臺石이 完存하다. 長一·五三m 幅七五cm 高二七cm 奉爐座徑 三六cm.

〔附記〕

法廣寺釋迦佛舍利塔重修碑

〔前面〕

新羅故都 革爲慶州府 飛鶴山在府北八十里 山有法廣寺 最稱新羅大伽藍 與佛國寺等是 年春正月 沙門玉自法廣道徒道覺致訊曰 世傳新羅王拾國以崇佛是寺之七寶布施修於王宮 然今皆剝盡 只有大雄殿五間 與二層金堂五層石塔 而世連遠居僧樸魯亦未聞塔中所有 徂效丙寅冬 寺僧以塔有虧缺 將撤而新之 惟明玉晚軒 二三比丘 寔尸維那 九月十六日 會衆爰撤 最下一層石縫中 得一玉函 淨內有純銀盒 益妙中貯綿繡喪一緘 傍有玉牌 長可四寸 廣寸餘 一面刻釋迦佛舍利字 又有兩褶紙 一書本寺 剎立僧名 年號 一書舍利 分布記 紙朽而革 存遂啓綿繡 重裏諦審 舍利二十二枚 團團菘豆色 微黃瑩朗 四照有衆 聚觀如堵 始知釋迦佛舍利所藏 莫不兢兢 踰踏沐浴 焚香設齊 移安於大雄殿 自其夜 瑞光亘天 連五夜 草木壘洞 晃如盡衆 譁然急治 石繕塔 別鑄銅函 以盛玉函 純銀盒 綿繡裏 舍利二十二枚 封如前 本月二十四日 還安于第二層塔中 又作玉牌 刻乾隆年月重修等字 並與古牌而置於銅函外 左右 越明年丁卯三月十三日 塔事竣 更設齊告 功同年五月 建法堂于塔前 扁曰金剛戒壇 又其下 別起香爐殿 以爲禮佛之所 通道是 傲嗚呼 藐茲末浚 闍黎幸以宿緣 獲觀精光 於東來建塔 一千七百年之後 岡非 大慈恩力 又諦本寺爲眞平王願堂 而元魄義相 二尊 宿幹事之迹 至五百二十五間 彫沈沈矣 斯焉而不

〔後面〕

能 一表示於百劫永有信香 何以報佛恩 敢請居士形管 而張皇之以 秀我豐碑 余酒日善哉 辱諸君示此奇緣 與有幸矣 佛法之來 東土已久 自新羅法興王始 興佛教 其嗣

眞興王十年己巳爲梁武帝中大同四年遣使新羅送釋迦佛舍利王率百官奉迎入宮剃髮被袈裟自號法雲王妃亦爲尼眞平王以法雲之孫事佛惟謹其日命元曉創是寺奉舍利建塔自爲願堂此在信史願諸僧不察耳眞平之世文獻蔑如薛弘儒崔文昌皆未及出世今得於塔中者其文如蟲涎鳥跡所稱年號亦用本那一時私記吾惡乎證道覺又言佛舍利還安時計數則亡其一蒼黃莫測寺僧聽眼敬捨於大雄殿砌石間自云夜夢神告如此又有一暗者乞食於寺寺僧戲謂汝誠心助塔役佛應使汝言暗者如指竭力一夜忽大叫曰夢見一老僧持金刀截吾口自定揚言善唱歌佛之靈昭昭也余笑而應曰奚獨於斯八萬大藏經所教福德因果無一非誘人爲善善則徵銘曰於惟舍利矚辨之詳六籍收闕一理靡彰惚恍有象聞諸伯陽玄珠象罔信者蒙莊孰火其軀示現精光我誦佛書淨行金剛四相既泯六塵若亡菩提般若結爲寶藏如百千燈布耀燦煌是其靈明徧滿十方西來慧珠東照博桑石塔窺峩浩劫空蒼誰其啓者明玉斯誠衆目具瞻薦以華香五層突兀億代禎祥刻詩員珉傳告法場即心即佛妙覺津梁

乾隆 十五年庚午孟春

青泉居士申維翰謹志 立

〔左側面〕

大施主兼願畚秩「嘉善金順南兩主」子護軍時元「時享」遠願寺「通政聰眼」爲考通政孔平素兩主「嘉善鴻食」爲考李泰望兩主「正敏」通政元海前入畚「爲考李進和兩主」呂熙「爲考李德興兩主」會清「爲考姜順男兩主」就欽「趙芝碧」通政惠元「通政坦雲」金是漢「通政信行」道覺「爲考襄成必」崔儉同兩主「護軍張雲翰」幼學金聲振「千先益」通政秀演「嘉善眞下」金召吏「通政尹先」智日「爲母吳吳召吏朴」雪明「廊岑」三下

〔右側面〕

塔重修訂「宣定」山中靈湛(湛)「三性」智雄「本寺」和尚勝佑「ヨ明」世正「玉明」記會均「緣化自迂」彭刻大言「冷金貴奉」供養月英「都監最衍」片將「性悟」恕眞「文益」居士法信「就文」通政曇演「曇贊」金日兌「崔斗花」助緣「桐花」佛旺「銀海」紙林「寶鏡」遠彭「泉谷寺」天龍「安旺」巨洞「畚」護軍朴銀奉「通政韓戒必」孫召吏「哲弘」通政黃老正「通政戒邏」本寺址踏查는 지난 六月十一日 豫期치 않았던 機會에 實施되어 調査

具不備 現場의 麥作物의 障害와 限定된 時間에 充分히 調査를 못하고 再 調査를 期하지 못한채 故高裕燮氏의 周忌에 즈음하여 敬虔한 마음으로 拙稿를 紹介한다.

〔註〕層突사이에 「母以色相讚眞常」의 八字가 있다는 바 서울權相老氏所 藏 青泉居士文集에 依한다함.

扶餘 舊衙里 寺址心礎石

李 殷 昌

扶餘邑 舊衙里 現扶餘警察署 岱地가 바로 寺址였던 바 日帝末에 藤澤 一夫氏에 依하여 寺址發掘調査가 있었다. 이에 對한 調査報告書가 나오 지 않았기 때문에 仔細히 알 수 없으나 寺址의 伽藍配置形式은 既往에 發掘調査된 軍守里寺址, 定林寺址 扶蘇山寺址 等과 또 最近에 發掘調査된 金剛寺址①와 같이 百濟의 典型的인 堂塔伽藍制를 하였다 하며 寺址에서 「天王」이라는 在銘瓦片이 出土되어 百濟 天王寺址로 推定된바도 있다. 그리고 當寺址에서 木造塔心②礎石이 出土되었으니 百濟 當時에는 출 룡한 木造方塔이 建立되었던 모양으로 或三國史記 卷二八 百濟本紀六 義慈王二〇年條에 「三月 風雨暴至震天王, 道讓二寺塔 云云」한 天王寺塔 이 곧 舊衙里寺址 木造塔址에 該當되는 것으로 推測해 봄직 하다. 이 舊衙里寺址 木造塔址 心礎石은 現在 國立博物館 扶餘分館에 所藏 되어 있는 바 오래前부터 筆者의 關心거리가 되었다. 이에 그 調査된 事項을 記述하여 心礎石의 모습을 살펴 보기로 하고 나가서 百濟의 木 造塔의 心礎石에 對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二

大抵 心礎石은 木造塔婆의 擦柱座가 되는 한편 舍利裝置를 爲하여 놓 여지는 것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三國時代에 佛敎傳來와 더불어 盛